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하나님 앞으로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기도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 말씀

요한 1서 2: 28-29 (신약 388쪽)

말씀 선포 / 김성배 목사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결단의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오정은 / 구민 집사

봉헌 찬송 213장 "나의 보화 드리니"(4절)\*

찬양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 3절)\*

삶과 세상 속으로 축복 기도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금요 찬양 예배

찬양과기도

성경: 사무엘상 15:10-30

묵상제목: 어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연약해 보이는 자들, 그러나 절대 그 내면은 연약하지 않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의 끈으로 묶어주십니다.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중보기도 공동체는 우리의 의지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붙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중보기도'라는 영적인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조금이라도 자라서 싹을 틔우는 이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듯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일 때,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 지금, 다시, 중보기도, 이진화

함께 하는 기도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동역자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다시, 중보기도 -내가 살기 위해 붙들 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잘 지내다가도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순간 자신감이 사라지는 이유도 숨어 있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최대한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7-29)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세상의 방법에 먼저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계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방법과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내 자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개입하심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역 / 행사

11월 추수의 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섬김, 소망의 인내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세상을 섬깁니다.

2023 주제 말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표어: 성장하는 교회

1. 소금과 빛 된 주간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여 능력을 얻어소금과 빛 된 성도의 본분을 실천합니다.
2. Oikos 가정사역 다음 주일저녁(김훈태/신실 집사 가정)
3. 성경 1독 운동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문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을 냅시다.
4. 추수감사절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다음주일(19일)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5. 자녀/부모/사업 한 해의 은혜를 돌아보며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6. 기도 사역 교회의 사역과 교제,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 가되고 전도의 모범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코우노넷 수술과 회복: 박희자 (박진성 집사 모친)  
한국 방문: 김윤경 사모(17일 귀국)

냉인특하 김지수 (2)

박진성 (5)

11월 사역

Oikos 모임(19) 소금/빛 된 주간(12-18)  
사역친교(19) 선교 주간(19-25) 선교 주일(26)

❖ 한 주간의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개요** 요한 1서 2:28-29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제목**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 첫째, 믿음으로 / 둘째,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고
  - 셋째,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 넷째,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을 잘 이행하며
-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

**말씀 요약**

예수님의 재림을 더 잘 기다려야 한다. 첫째, 굳게 확신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관해 성경이 세 배나 증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다.

둘째,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짓 된 속삭임을 경계해야 한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른다 해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닌,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재림의 날에 담대할 수 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을 최고의 준비는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것이다.

넷째,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성도는 신앙생활도 잘 한다. 주께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된다. 당신은 당장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점점 더 성숙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1.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맺도록
2.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전도 우리 삶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4.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네팔, 뉴욕 박은주 선교사
8. 교회 연합과 협력 사역을 위해 / 샬렘교회

<b>예배 섬김이</b>	11월 12일 박진성 집사
	19일 김훈태 집사
	26일 김윤경 집사
<b>주일 기도 인도</b>	12월 3일 최선운 집사

<b>주일 헌금 위원</b>	11월 12일 오정은 / 구민 집사
	19일 구민 / 오정은 집사
	26일 구은강 / 최내권 집사
	12월 3일 최내권 / 구은강 집사

<b>주일 안내</b>	11월 구민 집사
	12월 최내권 집사

---

**섬기는 사역자** 지도 목사(Lead Pastor) 김성배 목사  
찬양 인도자(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교육전도사(Youth Pastor) Jacob Kim 전도사

---